

# 동신대 연극 '청년 윤봉길' 지역 첫 예술의전당 무대

김민호 예술감독·이승원 연출  
문창주 등 재학생 6명 조연·기획  
순국 90주년... 독립운동 재조명

건네받고 흥커우 거사를 진행한다. 이후 백범이 주도하는 임시정부로의 관심과 중국의 자금지원이 쏠리게 되고 임정 내에 백범의 입지도 튼튼해지게 된다. 신암 안공근은 남산의 의지로 일으킨 거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백범에게 항의한다.

동신대학교 교수와 학생들이 참여한 윤봉길 의사 순국 90주년 기념 연극이 예술의전당 무대에 오른다. 동신대 뮤지컬실용음악학과 김민호 교수가 예술감독, 이승원 외래교수가 연출, 김정현 외래 교수가 출연(왕웅 역)하며 문창주(4년·일본군 역) 등 재학생 6명이 조연·기획·조명으로 참여하는 연극 '청년 윤봉길'이다.

극은 마지막 목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독립에 대한 결연함의 기세로 강인하고 결기에 차 있던 25살 피 끓는 청년 윤봉길을 재조명한다.

이번 연극은 윤봉길 의사가 상해 흥커우 공원에서 폭탄을 투척하고 순국한 지 90주년인 해 무대에 오르면서 관심을 받고 있다.

21-24일 서울 예술의전당 CJ토월극장에서 관객들을 만나는 연극 '청년 윤봉길'은 지난 2020년 제38회 대한민국 연극제에서 대통령상과 연출상을 받은 극단 예촌의 연극 '역사의 제단'을 협업을 통해 수정·보완한 작품이다.

김민호 교수는 예술의전당 공연에 이어 지역 콘텐츠 최초 미국 뉴욕 카네기홀 공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윤봉길 의사 순국 100주년에는 중국 상해에서도 연극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예술감독을 맡은 김민호 교수가 각 분야 전문가, 학과 제자들과 유기적으로 근대 인물을 재조명하는 문화콘텐츠를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한 지 2년 만에 선보이는 성과물이다. 지역에서 만든 문화콘텐츠가 예술의 전당 무대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교수는 "지역 콘텐츠 최초로 예술의전당에서 공연할 수 있을 만큼 작품성과 예술성을 인정받아 영광이다"며 "우리 학생들이 이번 공연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제예술제에서 활약하고 있다. 완성도 높은 다양한 작품 기획과 연출을 통해 우리나라 문화예술계를 이끌어갈 인재를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윤봉길'은 윤봉길 의사의 삶을 다룬 연극이다. 나라 잃은 민족에게 가슴으로부터 피 끓는 역사의식과 대한독립을 향한 불씨를 지피게 한 청년 윤봉길을 조명하고 흥커우 공원 거사의 진실이 무엇인지 파헤친다.

한편, 예술의전당은 지역 우수공연으로 선정된 작품 4편을 21일부터 8월 14일까지 토월극장 무대에 올린다. 연극 '청년, 윤봉길'을 시작으로, 오페라 '처사 남명' (경상오페라단), 발레 '신데렐라' (부산발레시어터), 연극 '그날, 그날에' (극단 파랍볼)가 공연된다. 예술의전당은 선정된 4개 단체에 이번 공연에 필요한 공연장 대관료 약 1억원을 전액 지원한다.

누구나 알지만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름 남산 윤우의. 극은 해설자를 통해 서사적으로 진행된다. 남산은 백범의 소개로 김홍일에게 폭탄을

/최진화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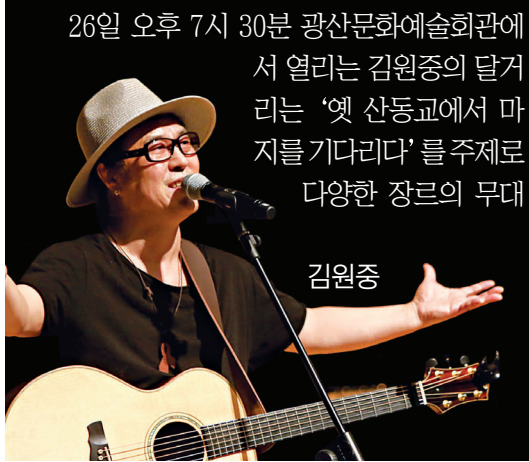
연극 '청년 윤봉길' 출연진

/동신대 제공

# '김원중의 달거리' 2년 만에 대면공연

26일 광산문화예술회관

"빵 만드는 공연 김원중의 달거리" (이하 김원중의 달거리)가 2년 만에 대면공연을 연다.



김원중

를 선사한다.

김원중의 달거리는 매달 마지막 주 화요일에 진행되며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과 더불어 광산문화예술회관에서 관객들과 대면으로 만날 예정이다.

이번 공연은 생명과 평화를 노래하는 가수 김원중과 느티나무밴드, 마음을 치유하는 샌드아트메이커인 작가 주홍, 유쾌한 거리음악사 밴드 우물안개구리가 출연한다.

특히 2,000여 년의 시간이 흐른 극락강 다리인 '옛 산동교'에서 마지막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오랜만에 관객과 함께 평화의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이날 공연에서는 김원중 신곡 '옛 산동교에서 마지막을 기다리다'도 공개된다.

또 국내 유일 고려인 자녀들로 구성된 광주 고려인마을 어린이합창단이 출연, 3개 국어에 능통하는 장점을 살려 '러시아 민요'와 선조들의 아련한 추억이 담긴 '홀로아리랑'을 부를 예정이다.

광주고려인마을은 전국 유일의 고려인 역사마을이자 마을공동체이며 역사마을 1번지로 자리매김했다.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통해 고려인 동포들의 삶을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김원중 연출은 "참 오랜만에 관객들을 공연장에 모실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사회적 관심을 예술로 이야기하고 향토적 특성이 있는 지역 콘텐츠를 문화콘텐츠로 만드는 데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이나라 기자

# 백혈병소아암협회, 환아·가족 프로그램 진행

(사)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광주전남지회는 백혈병소아암 환아와 가족들을 위한 여름방학 맞이 '아이들의 미소가 희망이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총 9개 세부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23일 강대규 영화감독과 함께 하는

가족영화제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시작으로 8월말까지 진행된다.

세계적 거장을 만나는 미술관 산책 '유에민전 특별전 관람' (기자동차 후원), 사회복지공동금회 복권기금 '행복한 우리 가족 여행' 25가정, 승승장구 광주FC 응원 참가, 별빛누리

과학캠프(광주 과학관), 사랑의 쿠키체험(호남대학교 외식조리학과), KIA 타이거즈 응원 참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 직업체험 특별전 참가 등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최영준 이사장은 "오랫동안 코로나로 지친 우리 환아와 가족들에게 소중한 추억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번 프로그램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해준 각 후원회원 및 기관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이나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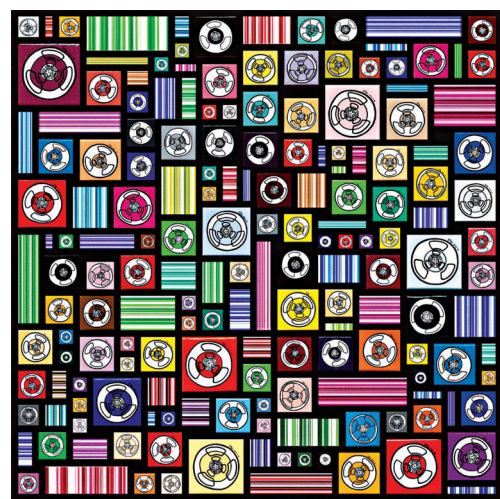
# 대중매체 길들여진 현대사회 필름으로 표현

오늘부터 선영현 개인전 'Frame'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갤러리 1관

지난해 금호갤러리 유스퀘어 청년작가 전시 공모를 통해 선정된 선영현 작가의 개인전 'Frame' (프레임)이 21일부터 27일까지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갤러리 1관에서 열린다.

전남대 미술학과 박사를 수료한 작가는 오늘날 대중매체가 현대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을 필름이미지로 만들어 다양한 컬러로 작업을 선보인다. 대중매체에 길들여진 현대사회의 문제점을 이미지화한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작가는 필름의 발명으로 인해 기록된 이미지의 편집 및 조각이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는 가설을 세웠다. SNS나 비디오 텍스트 같은 뉴미디어의 발전이 현대사회를 빠르게 변화시킨다고 생각하는 작가는 이러한 대중매체의 변화를 반복된 필름이미지 패턴으로 표현했다. 작품에 보여



선영현 '비트 시스템'

지는 필름의 패턴들은 가지각색의 다양한 색으로 대중매체에 대한 작가의 감정을 표출해낸다.

전시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다. 전시 마지막 날인 27일은 오후 1시까지이다. /최진화 기자

# '고 대감댁 사랑방' 수강생 모집 고원희 가옥서 '일생의례' 체험

(사)대동문화재단이 2022년 고백·종갓집 활용사업 '비 개인 제봉, 마음을 걷는 시간'의 프로그램 '고 대감댁 사랑방' 수강생을 모집한다.

'비 개인 제봉, 마음을 걷는 시간'은 문인으로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의병을 일으켜 일가족과 함께 전선에 나섰던 제봉 고경명과 그 일가의 충효열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인 '고원희 가옥'을 배경으로 제봉레시피, 고 대감댁 사랑방, 여름방학 제봉스테이, 비 개인 제봉 숲, 마음리셋 등 총 네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첫 일정으로 '고 대감댁 사랑방'이 열린다. 오는 8월 5일 개강해 26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2시에 운영될 예정인 사랑방은 학문과 문화 예술을 닦았던 지아비의 공간이자 목객이 머무르던 공간으로 참여자는 이곳에서 직접 목객이 돼볼 수 있다. /이나라 기자

**최고의 품질과 성실 시공으로 고객만족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최고의 품질, 글로벌 일류기업**  
**(유) 모던라인트크**

**조달청등록업체**

- 01 **화장실 칸막이**
- 02 **실내벽체 마감패널**
- 03 **벽천장용 흡음재**

TEL. 062) 512-6662 FAX. 062) 512-6663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330 (계림동 924)